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6월 22일) 오천 명을 먹이시다 (루카 9,11ㄴ-17)



꽃에 둘러싸인 성찬례

안 다비즈 데 험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17세기 초·중반은 교회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응해 가톨릭교회 내에서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한 '반종교개혁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가톨릭 신자 화가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개신교에 저항하는 상징으로 성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찬례' 그림을 종종 발표했다. 안 다비즈 데 험의 작품도 이런 의미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안 다비즈 데 험은 바로크 화풍 작가답게 극단적 명암법을 이용한다. 주제를 배경과 분리해 단순한 정물화를 그렸지만 역동적 느낌을 준다. 작품 정중앙에는 성체와 성혈이 든 성작을 배치했다. 성체성사를 거행하지 않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해 성체와 성혈을 가장 두드러진 곳에 둔 것이다. 사방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성체 한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작가 안 다비즈 데 험 | 1648년, 캔버스에 유채, 125x138cm, 비엔나 예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를 받으소서.
-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9장 11ㄴ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11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 주셨다. 12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 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4 사실 장정만도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쉰 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16 예수님께서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17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어떻게 나누고 있었나요? (루카 9,13 참조)

보잘것없는 양식에 만족하시며 그것을 축복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는 얼마나 닮아있나요? (루카 9,16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축일 복음의 배경이 되는 곳, 오늘날 ‘타브가’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념하는 ‘오병이어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며 살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4세기경에 건립한 이 기념 성전에는 제단 바로 앞쪽 바닥에 비잔틴식 모자이크 장식이 있는데, 바로 빵 네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려진 오병이어 작품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한다면 왜 빵이 네 개밖에 없나?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사람들이 찾는 다섯 번째 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 위에서 매일의 미사성제를 통해 새롭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은 사람들이 다섯 번째 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빵 네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의 모자이크는 오병이어 성당을 찾는 이들 그리고 미사성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빚어진 마지막 빵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체 성혈을 대축일로 기념하면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요? 많은 양은 아니더

라도 주위 사람들을 먹이고 풍요롭게 만드는 빵, 주님의 기적을 오늘날에도 실현하는 데에 일조하는 빵의 모습을 갇출 수 있도록 주님의 몸과 피를 내 삶 속에 더욱 깊이 받아 모시도록 합시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9장 17절]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나 되었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예수님과 나, 그리고 세상】 교황님 6월 기도지향 '세상을 향한 연민'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다함께 성시간 참여하기
- ② 예수 성심 관련 도서를 선정하여 함께 읽기 [생활성서사 추천도서]



내 삶 속에서

- 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성체조배 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